춘천도시재생

uris.chuncheon.go.kr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4호

발행호 4호 **발행일** 2021년 7월 19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김보희, 이산하, 김다인, 이채은, 지아람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6)
협조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033-256-2045)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4호
2021. 7.

춘천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1 July **VOL. 4**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4호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 T 033-245-5266 W uris.chuncheon.go.kr/webzine

4 Special 춘천시의 도시재생 마을 브랜딩
우리 마을다운 '마을 시그니처'

8 Focus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로!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 교육

11 Focus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마을 사회적 농업 돌봄 프로그램

12 Event 2021년 1차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 & 부업능력을 갖추는 목공 교육

15 People 기초센터 코디의 '근화소양' 현장 체험기
기초센터에서 현장센터로!

16 Focus 협동조합 선진지 '목포' 견학
목포에서 협동조합 찾기

18 Event 구석구석 조운동네 탐험길! '조운플레잉' 이동형 공연
함께 걸어 조운길

20 Focus 번개야시장에 근화소양 도시재생 한스푼
2021 춘천 번개시장 개장!

21 People 약사명동 센터 신규직원 인터뷰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25 Focus 마주보며 웃게 되는 마법, 다같이 스마~일 찰칵!
요선 스마일 '함께 웃는 가게'

26 Place 교동소양동의 첫번째 마을 공유 공간
봉의산 마을 창작소



발행호 통권 4호
발행일 2021년 7월 19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김보희, 이산하, 김다인, 이채은, 지아람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6)

협조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033-256-2045)

춘천시의 도시재생 마을브랜딩

우리 마을다운 '마을 시그니처'

글/사진 이경은 코디네이터
협조 김다인, 지아람 코디네이터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그 정체성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타인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이미지가 같을수록
브랜드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만약 서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르다면 그 틈을 좁혀 나가야겠죠?
그 활동을 우리는 '브랜딩 하다' 라고 말합니다.
브랜딩을 하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가 '시그니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전달하고자 하는 마을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그려낸 상징이죠.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브랜딩 요소 중 하나인 우리 마을의 '시그니처'입니다.

_
약사리문화마을
사업명 : 약사리 문화마을 브랜드디자인 개발
사업일시 : 2020. 04. ~ 2020. 07.
개발용역 : 어랍쇼 컴퍼니

_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사업명 : 소규모 재생사업 마을이미지 제작
사업일시 : 2020. 10. ~ 2020. 12.
개발용역 : 어랍쇼 컴퍼니

_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사업명 :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이미지 제작
사업일시 : 2020. 10. ~ 2021. 02.
개발용역 : 티이오 커뮤니케이션

약사리 문화마을

2020년 4월 약사리 문화마을 브랜드 개발을 위해 용역사와 첫 미팅을 했습니다. 마을 브랜드를 개발하는 용역사가 마을 안에 있어서인지 회의 초반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미지 소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좋은 의미와 좋은 시각적 상징들로 무장한 시안을 무려 11개나 가지고 오셨으니 말 다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작업자가 11개의 시안이 가진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데, 회의 후반으로 갈수록 11개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미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약사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고즈넉한 기와
녹슬었지만 담담한 철문
셀 수 없는 시간을 넘어온 이야기들
끝없이 흐르고 건너온 풍경이 머무는 곳

약사리문화마을 시그니처는 약사리의 스카이라인과 망대의 모습을 시각적 상징으로 표현하였고, 약사리의 모음과 자음을 연결하여 골목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약사리의 'ㅅ'에는 집과 시곗바늘의 형상을 녹여냈습니다. 주요 색상은 약사천과 맑은 하늘을 나타내는 진하늘색입니다.



굿즈용 엠블럼에는 약사천을 유영하는 오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리의 눈 밑에 무언가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약사천에 서식하는 오리의 특징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업자의 디테일이 재미있습니다.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신사우동 50호마을은 6·25전쟁 이후 피란민과 무주택자들을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격자형 골목을 따라 단층으로 죽 늘어선 이 주택 단지는 후생주택단지, 구호주택단지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지어진 집들이라서 긴 세월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보수와 보강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두덕두덕 송판과 슬레이트를 덧대어가며 집을 보수한 곳도 있고, 예전의 모습은 잊으라는 듯 새 기와와 새 담장으로 리모델링을 한 곳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마와 콘크리트 기와, 시멘트 담장과 벽돌 담장, 사람 두 명이 나란히 걷다 보면 손등이 마주칠만한 좁은 골목, 단층 주택들 위로 시원하게 트인 하늘과 따뜻한 햇살. 지붕이 낮은 덕에 마을 골목에서 사진을 찍으면 푸른 하늘이 앵글에 함께 걸립니다. 새것과 오래된 것 그리고 그 위를 덮는 푸른 하늘이 어우러지는 색감은 꽤 괜찮습니다.

50호 마을 시그니처에 이러한 요소들을 곳곳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주요 시각적 키워드는 '골목, 벽돌 담장, 지붕, 소 양강, 햇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정, 정감, 이웃, 행복, 역사'라는 감성 키워드를 접목하고자 했습니다. '50호'라는 숫자를 전면에 세우기에는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성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사람과의 관계와 마을의 풍경 중에 어떤 것에 방점을 찍을지 등 다양한 고민이 이어졌습



니다. 좋은 시안들이 정말 많았지만 고르고 골라 2가지 시안으로 추려냈고 주민 투표, 전문가 투표, 전담 조직 투표를 통해 지금의 시그니처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5'의 동그란 듯 크게 휘어진 곡선은 울타리·공동체를 의미하고, '을'의 'ㅇ'과 'ㄹ'은 따뜻한 햇살과 골목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좌측으로 소양강의 푸른 물결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상징 색상은 주황색과 파란색입니다. 주황색은 '역동, 활력, 진취, 따스함'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희망, 물, 흐름, 성장'을 뜻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푸른 물결이 시그니처의 하단부를 단단하게 잡아주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시그니처가 완성되었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조운동네는 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 세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상가·금융·의료기관이 밀집된 복합 지역입니다. 사실 조운동의 마을 브랜딩은 다른 브랜딩에 비해 다소 난항을 겪었습니다. 먼저 요선동, 새명동, 지하상가 세 권역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상권 지역이라는 특성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만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안이 쏟아졌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시안이 없어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정작 핵심 키워드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조운동 도시재생의 사업명에 이미 담겨있었죠.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우리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중심을 잡고 주변의 키워드 들을 카테고리화하였습니다.

권역마다 가진 특색과 성향이 다르기에 특정한 환경을 묘사하는 키워드가 아닌 연결, 결합, 터전 등의 추상적 키워드로 큰 갈피를 잡았습니다.

조운동네의 시각적 포인트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과 상가입니다.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사이사이 표현된 방울들로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화하였습니다. 대표 컬러는 하늘색과 파란색을 조합하는 것이나, 문화행사와 축제가 많은 곳이니만큼 대표 컬러 외에도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약사리문화마을, 50호마을, 조운동네도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와 이미지들을 계속 생산하고 쌓아가는 중인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입체적이고 뚜렷한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을 브랜드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게 될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로!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 교육

글/사진 이채은 코디네이터
인터뷰 메이커스페이스 팹랩 강원 최지욱 연구원, ㈜Creallo 정훈모 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 기술로 '드론', '3D 프린팅', '코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고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도 4차 산업혁명에 속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로그래밍(코딩)'과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이 미래에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지역 메이커 양성을 통한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Fab Lab 강원'과 함께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교육장을 들어오는 7살 어린이부터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50대 메이커까지 총 39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이 참여한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 교육〉.
이번 메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메이커 스페이스 Fab Lab 강원의 최지욱 연구원님과 정훈모 강사님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Fab Lab 강원'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메이커 스페이스는 'Maker'(만드는 사람) + 'Space'(공간) 즉, 만드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강원도 내 8개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98개가 있습니다.

각 메이커 스페이스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시면 그곳만의 특화된 메이킹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ab Lab 강원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메이킹에 특화되어 있어 다양한 디지털 장비(3D 프린터, 레이저커터, UV 프린터 등)이 구비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메이킹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b Lab 강원이 한림대학교 내부에 있어서 한림대학교 학생 혹은 교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킹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플러그드 코딩
코딩이란 놀이를 통해서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을 이야기함. 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 및 놀이,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놀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며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햄스터 로봇
피지컬 컴퓨팅이란 컴퓨터로 처리한 결과를 현실 세계로 직접적으로 출력해주는 컴퓨팅 기술로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실체화하여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업이다.

메이커(Maker)란 무엇인가요?

메이커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도 기계를 활용하여 예전보다 쉽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금만 배워보면 모두 다 쉽게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신가요?

3D 프린터, 3D 모델링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어려운 기술', '내 삶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도 처음에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3D 펜으로 무드등을 만들면서 '나만의 것'을 만든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다양한 3D 출력 방식과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3D 프린터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캐릭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교육생분들이 매우 즐거워하시면서 빨리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시는 의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교육생분은 '머릿속에 막연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드렸는데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이커스 양성 교육을 통해 교육생분들이 바쁜 일상생활로 잃어버렸던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얻어가시는 것 같아 너무 즐겁습니다.





3D 프린팅 첫걸음 및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세상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온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델링(디자인) 작업과 출력과정을 거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D.I.Y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수업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본인의 생각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시간을 통해서 창의력을 증진하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며 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직접 제작해보는 수업이다.

드론으로 보는 세상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해 탐구하고 드론 비행 훈련 및 드론을 활용한 촬영을 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드론의 기초, 이론, 규정, 기초 정비, 배터리 관리법, 조립 및 비행의 원리, 드론 촬영의 기초, 기초 영상 편집 등의 전반적인 드론에 대해 학습한다.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 교육〉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Fab Lab 강원은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혹은 '메이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이란 메이커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메이커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메이커가 많아질수록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의 일환으로 교동·소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같이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함께 가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이커스 양성 교육이 메이커 운동 확산이라는 함께 가는 한걸음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마치며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메이커, 곧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메이커스 양성 교육을 통해 기술 분야를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도 많았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던 것들을 실현해봄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춘천시가 함께 지역의 더 나은 모습을 상상하며 실현해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명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교육
일정 2021. 5. ~ 2021. 7.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성인
장소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메이커 스페이스 Fab Lab 강원
프로그램 언플러그드 코딩, 스크래치를 활용한 햄스터 로봇,
3D 프린팅 첫걸음 및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세상,
드론으로 보는 세상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마을

사회적 농업 돌봄 프로그램

글/사진 김보희 코디네이터

우두동 6통 50호 마을은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現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지에서 주민참여 S/W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였던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작년 주민참여 S/W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우리 마을 돌봄 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 활동을 말합니다. 대체로 돌봄·교육·일자리 제공 세 종류의 활동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2017))

50호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소규모 텃밭 활동을 통해 마을 이웃 간 소통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도시농업관리사 및 복지원예지도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께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6월 10일 첫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농업 돌봄 프로그램 이후에도 50호 마을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진행으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50호 마을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우두동 사회적 농업 마을돌봄 프로그램
기간 2021. 06. ~ 2021. 11.



2021년 1차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
‘부업능력을 갖추는 목공 교육’

글/사진 김다인 코디네이터
인터뷰 보조사업자 이금순, 장순학

2021년 1차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과 ‘부업능력을 갖추는 목공 교육’이
지난 4월에 시작하여 6월 2일 성과 공유회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들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사업자분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다육이도 함께!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조사업자 이금순입니다.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은 주민들이 모여 다육이(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를 식재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노인 돌봄과 놀이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전문 강사는 따로 없이 다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다육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 기획 계기가 궁금합니다.

보통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면 주민이 아닌 누군가가 앞에서 설명이나 강의를 하고 주민들은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사업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물 중에서 다육이를 선택해 수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육이를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키워왔습니다. 꽃 같은 경우는 필 땐 예쁜데, 꽃이 지면 꽃잎을 다 치워야 하고 벌레도 꼬여서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식물도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식물 자체에는 관심이 안 생기고 유독 다육이에만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육이는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자라고, 묵을수록 멋이 생겨요. 또 알고 보면 무조건 키우기 쉬운 것도 아니라서 관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다육이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식물이라 이웃끼리 다 같이 다육이에 대해 공부하고 다육이 아트, 다육이 조형물이 흔하지 않으니 저희 마을에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느라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딱 맞춰 준비하는 게 맘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장소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비가 온 적도 없고 날이 더울 때도 그늘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야외라 코로나 19 영향도 덜 받은 것도 하늘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몇몇 말씀은 코디네이터로서 곱씹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 민관협력을 강조해도 뉴딜사업 교육에서는 주민이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 말씀, 주민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정신적으로 힘드셨다고 하신 말씀이 자꾸 머리에 맴돕니다. 주민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행정적으로 잘 풀어내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는 것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더욱더 현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사업명 꽃보다 이쁜 이웃과 사랑을
사업자 이금순
기간 2021. 04. 21. ~ 2021. 06.02.(14시~16시)
장소 약사동 망대공원
프로그램 배양토의 이해와 도구 사용법, 다양한 다육이 식재, 모아 심기 등

내가 쓰는 가구는 내 손으로 만들어요! 「부업 능력을 갖추는 목공 교육」

'부업능력을 갖추는 목공교육' 기획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사업자 장순학입니다. 목공은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협동, 소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톱질 할 때는 옆에서 서로 잡아주면서 도와야 하고, 기계를 사용하려면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배려와 양보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공 수업을 하면 생활에 실제로 도움도 되고 이웃들과 몸을 부딪치며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업능력을 갖추는 목공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전시회에서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이프로그램에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끼리 만나는 그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하면서 짝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중간중간 간식도 먹으면서 다 같이 담소도 나누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서로 언니, 오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수강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나온 것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성실히 참여해주신 주민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수업을 하거나 다음 시간에 일찍 와서 저번에 못다 한 작업을 마무리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도마, 책꽂이, 접이식 탁자를 내 손으로 직접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들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손수 만든 가구를 보며 뿌듯해하셔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주민분들, 목공 강사 양홍준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피드백 및 느낀 점도 카카오톡에 올려주시며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순학 선생님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었고 유익했는지 인터뷰 내내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인터뷰를 끝내며 선생님은 주민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개인적인 문의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고, 수강 인원 10명을 다 채워서 신청자를 다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를 잘 참고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하반기 2차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번 고민해주시고 너무 잘 준비해주신 덕분에
정말 즐겁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취미를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운 야고보 신부님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즐거운 시간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한 분... 모두 소중한 분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한겸

사업명 부업능력을 갖추는 목공 교육
사업자 장순학 (강사: 양홍준)
기간 2021. 04. 23. ~ 2021. 06.02.(14시~17시)
장소 해펠레 목공방
프로그램 목공 교육을 위한 안전 교육과 공구 사용 방법, 도마·책꽂이·접이식 탁자 만들기 등



기초센터 코디의 '근화소양' 현장 체험기

기초센터에서 현장센터로!

| 글/사진 이산하 코디네이터

"산하야 근화소양(현장지원센터)에 사람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당분간 지원(파견?)을 나가서 현장센터 업무를 배워보는 건 어때?"

센터 입사 8개월이 다 돼가던 무렵, 웬일인지 퇴근길에 역까지 데려다주시겠다는 사무국장님의 말에 신이나 차를 얻어타고 가던 나에게 사무국장께서 넌지시 여쭤보셨다.

"음, 좋아요! 근데 혹시 제가 거절하면 저 잘리는 건 아니죠…?"

그렇게 퇴근길에 성사된 현장센터로의 지원. 내 업무 능력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자 기초센터 내에서 전담 업무가 없던 나에게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근화소양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2016년 당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개소하여 19년 현재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까지 춘천시의 도시재생을 도맡아 지원하던 곳으로 춘천시 도시재생의 최고참 현장지원센터이다. 근화소양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기간은 2020년, 지난 해까지였지만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올해까지 사업이 연장되었고 사업 연장 기간 마무리를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 지금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3월 초 현장센터로 지원을 나오자마자 3주간의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전임 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 및 센터 서무업무, 비품 관리, 근화소양 사업지역 내 주민대표분들과 만남 등 앞으로 남게 될 근화소양 현장센터의 유일한 상주인원으로서 현장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속독하듯 배웠다. 이건 마치 내가 RPG 게임 속 2차 전직하는 캐릭터가 된 기분이었다! 3주 만에 모든 걸 내가 짊어지다니!!.. 그중 주된 업무는 '근화소양권 도시문화 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주 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을 위한 국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업무다. 처음 모집공고부터 사업컨설팅, 심사, 집행 및 정산까지의 한 사이클을 마치고 난 6월 현재, 내가 직접 기획하여 올린 5차 주민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초센터와 현장센터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단연 주민과 만남이 아닐까 싶다. 기초센터에서는 각 현장의 의견 취합 및 알림, 대중들에 대한 사업의 홍보, 신규 사업지 물색 등을 주로 맡는다면 현장에서는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중간 연결고리로써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및 행정적 업무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내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일들로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담당 부서로 연결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다.

기초센터에와는 다른 현장의 값진 경험으로 이제는 제법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실무자 중 한 명으로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다!

Event

협동조합 선진지 '목포' 견학

목포에서 협동조합 찾기

글/사진 도윤정 코디네이터

5년간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하고 큰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일 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끝이 나더라도, 주민의 홀로서기는 협동조합에서 시작합니다.
2016년 시작한 근화소양 도시재생은 올해 6월 17일부터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국토부의 '근화소양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승인받기 위한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녀온 목포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바다 협동조합은 제주에서 살던 예술가 신형배 이사장이 목포에 반해 정착하면서 역 인근 깔끔한 숙소가 없음을 판단하고 마을 호텔을 구상했습니다. 처음엔 숙박업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여행 콘텐츠를 주민협의체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내 각각의 사업자가 운영하던 게스트 하우스, 식당, 카페, 갤러리와 협약하고, 목포 여행자의 기호에 맞춰 여행지 루트를 안내하는 '플랫폼' 역할을 갖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9월 '198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열린 '건맥1987 축제'가 방문자 6,000명에 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자,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직접 느낀 주민들이 건맥1987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건맥1987은 일 층에 펍, 이 층부터는 여관을 개조해 만든 건맥1987 스테이를 구성하였습니다. 생맥주와 지역특화자원인 건어물을 조합한 펍과 깔끔한 시설을 갖춘 객실로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무려 백여 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조합원은 주인이기도, 건맥1987의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1987 개항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례적으로 198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 초중반에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조금의 수리를 마친 뒤 지역 예술가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사업과 함께 마을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상회〉라는 마을상점에 지역 공방 20개 브랜드가 입점하여 있으며, 목포시를 담은 수공예품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창출도 내고 있습니다. 머리핀과 직접 뜬 손수건, 가방, 마그넷, 떡, 악기 등 목포를 홍보하는 독특하고 좋은 질의 기념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가진 색과 멋을 가지고 이웃과 손을 잡고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근화소양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또한 근화동, 소양동의 고유한 성질에 아이디어를 더해 이웃 간 돕고 사는 조합, 함께 소일거리를 하는 조합, 근화·소양을 찾는 누구에게든 마을 자랑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라며 견학 후기를 마칩니다.

구석구석 조운동네 탐험길! '조운플레잉' 이동형 공연

함께 걸어 조운길

글/사진 지아람 코디네이터
협조 김민경 코디네이터

이동형 공연 '함께 걸어 조운길'은 행사명처럼 이동 하며 조운동 도시재생 권역인 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 일대 구석구석을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선동, 지하상가, 새명동 등으로 구성된 세 가지 탐험 코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그 골목의 명소를 탐험하는 것인데요.
조운동네 거리 곳곳에서 보물같이 만나는 조운동네만의 명소를 찾는 재미와 다채로운 예술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 과 조운동 권역(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을 보고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업명 '조운플레잉' 이동형 공연 – 함께 걸어 조운 길
기간 2021. 4. 30. ~ 2021. 5. 1.
장소 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 일대 구석구석
목적 문화예술놀이를 통한 문화활성화 사업 및 상권활성화 기대



코디네이터가 되기 전, 춘천 시민으로 '함께 걸어 조운 길' 행사에 참여하다!

'함께 걸어 조운길'이라는 행사명을 들었을 때, 같이 걸으며 공연을 보다 보다~ 라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춘천에 살며 명동을 자주 갔지만, 내가 모르는 곳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은 다들 일정이 있었고, 홀로, 문자로 전송된 행사 시작 장소로 갔습니다.

가보니, 아이들과 아기엄마들,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무쳐올 때, 10살, 6살 아이를 둔 엄마께서 제게 자리를 주며 같이 있자고 해주셨습니다. 그날 하루 태형(10살 아이)의 일일 이모가 되었습니다.

진행 측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목을 축일 음료를 주며, 팸플릿을 주셨습니다. 팸플릿을 받고는 놀랐습니다! 지하상가밖에 없는 줄 알았던 코스가 2가지 길이 더 있다니! 3가지 코스마다 다른 느낌의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선택의 재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고른 코스는 지하상가였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시작으로, 지하상가에 리모델링된 휴식공간이 좋은 코디룸이 되어, 여러 시대의 옷을 입어보고는 그 옷을 입고 런웨이 + 춤을 췄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지만, 시민분들, 가족분들 모두가 웃으며 참여했기에 저도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선, 지정된 상가를 찾아가 상품권을 사용하는 미션을 줬습니다. 상가가 어디 있는지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며, 이곳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웠습니다. 지하상가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추억의 상점들도 있고,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상인분들에게 크게 인사를 하고 미션 종이를 드리니, 이용 상품권을 주셔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정말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이동형 공연이라는 말대로 지하상가 중앙광장에서 청소년 댄스팀, 합창, 마임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선 많은 시민의 얼굴에 함박웃음을 보니, 훈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웃을 일이 많이 없던 시기에 저도 공연을 보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시청광장에 올라가니, 저녁 분위기에 노란빛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의 버스킹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막바지, 일일 이모가 되어 함께 웃고 정 붙였던 가족과 인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되었던 '함께 걸어 조운 길', 앞으로도 조운플레잉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운동네에 문화예술이 결합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로 동네가 북적대기를 기대합니다.



번개야시장에 근화소양 도시재생 한스푼

2021 춘천 번개시장 개장!

글/사진 도윤정 코디네이터





사업명 번개시장 주민(상인)역량강화교육
사업자 (주)혜랑컴퍼니
기간 2021. 03. 22. ~ 2021. 05. 12.
장소 번개시장 공동조리장 및 현장지원센터 2층 회의실
프로그램 야시장 성공사례 분석,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 위생 교육, 조리 실습, 데코레이션 코칭 등

2021 춘천 번개시장이 5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재래시장의 침체 속에서 2021 번개시장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도시재생과 번개시장 상인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번개시장에 입구에서 쭉 걷다 보면 갈림길 왼쪽에 새로 지은 번듯한 공동조리장이 있습니다. 근화소양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어진 이 공동조리장에서 근화소양 도시재생을 통해 '번개시장 상인역량강화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대를 이용한 장사를 위해 3개월간 주말마다 모여 셰프의 코치 아래 위생교육을 받고, 춘천의 특색을 살린 아이디어 메뉴를 토론하고, 개발하고, 원가 효율성과 회전율을 고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실전연습까지 마쳤습니다.

번개시장 상인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닭갈비 바게트, 숯불닭갈비 햄버거, 닭갈비 피자, 돼지껍데기 볶음 등 신메뉴 개발과 함께 기존에 팔던 폭찹, 칠리마요, 크림베이컨, 땡초간장 닭튀김, 모둠전, 해물파전, 파스타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전문적인 지도를 마치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번개시장 상인회 김영배 사무국장은 "번개시장 상인역량강화교육으로 인해 6명밖에 남지 않았던 상인이 12명까지 늘었다. 음식의 질과 맛이 좋아졌다고 방문객의 찬사를 받고 있다. 2021 첫 개장식에 478명이 방문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400명 가까이 찾아오고 있어 번개시장의 부흥이 새로이 시작된 것 같아 희망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양강 물 맑고 인심 좋은 근화동 소양동에 들르셔서 근처 5분 거리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멋진 노을도 구경하시고 번개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세요. 늘 비슷한 음식점, 카페에서 벗어나 근화동, 소양동의 참맛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사명동 센터 신규직원 인터뷰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글/사진 이경은 코디네이터
인터뷰 약사명동 현장지원센터장 함성언, 코디네이터 김다인
협조 김보희 코디네이터,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새 식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새 식구가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지난 4월 4일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위촉되신 함성언 센터장님과
동(同) 센터에 2월부터 근무 중인 김다인 코디네이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두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으로 일하게 된 함성언입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시각예술 기반의 전시기획과 관련한 일을 했습니다...만, 스타트업 회사도 다녔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춘천을 떠나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큐레이터 또는 디렉터로 활동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분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성북동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근거가 마련된 직후 '성북동'이라는 공간적 연결고리를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저와 저희 갤러리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해당 지역사회와 도시재생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계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분야로 업(業)을 전환했다기보다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의 경중·분량 같은 것들이 늘고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을 훨씬 더 많이, 오래 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갤러리 버튼 디렉터로 활동하는 동안 성북구청과 협의하여 art-scene(예술계, 예술 분야, 예술 현장)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셨는데요,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활동 중인 큐레이터와 성북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아트씬 개발 및 구축과 더불어 아티스트-민간 전시공간-공공전시공간 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래된 달동네에 전시공간과 레지던시를 새롭게 만들고, 철거가 예정된 수도 사업장을 전시공간으로 바꿔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전을 기획,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꾸준히 지역 내 예술가들을 확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에서 화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실 때에 마을 가드닝 사업 중 '가드닝'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하다 보니 업체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조경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특별히 조경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철원 화지마을의 재생사업의 경우 '마을 가드닝'을 메인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면 주민이 배제되고 외부 전문가의 의도대로 정원이 조성되거나 프로그램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잘 알아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도 활성화 계획이나 기타 세부사업 계획들을 살펴보면 앵커시설에 정원이 포함되거나 주민이 참여하는 정원 조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을 공부하기에는 제 수학 실력이 심각한 수준이라...

'서울창고(brunch)'와의 인터뷰 기사(제목:그러나 언제나 다른 이야기가 있다)를 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성북동을 '오래된 것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곳', '60년 된 중국집 옆에 콜렉트 숍이 공존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곳', '작가들이 떠나야 했던 곳', '이제는 조금 불편해진 곳'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표현으로 '약사리 문화마을'을 표현하자면 어떠한 곳인가요? '약사리 문화마을'에는 어떠한 낭만이 존재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사실 저는 춘천에서 아주 잠깐 살았습니다. 약사리 문화마을은 예전엔 그냥 약사리 고개였고, 육림극장에서는 홍콩 영화를 열심히 본 기억들이 전부죠.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있던 약사리와 육림고개와는 너무 다르고, 지금 풍경은 생경하기만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릴게요. 안타까운 건 '외부인들에게 유명한 만큼 춘천 사람들도 좋아하는 공간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 관광지가 되어버리기에는 너무 생활공간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예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곳이니까요.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낭만'보다는 '욕망'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 되었는데, 지금 '낭만'을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요. 약사리의 '낭만'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은 주민들이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센터는... '욕망'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중 가장 크게 느끼시는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생활공간과 상업공간이 혼재하고, 모든 곳이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이잖아요. 저는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예쁜 곳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게 센터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이나 담장 보수 사업 같은 기본적인 사업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조합을 설립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의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걸 4년 안에 마무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SW 사업의 계획과 추진도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추진율이 낮은 편이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물 만들어놓고 뭘 하라는 거냐."라는 협의체 회원의 말씀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또한 이제까지 우리 센터가 마치 민원접수처나 봉사 단체 사무국처럼 여겨지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약사리마을과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주민, 센터 직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센터 직원분들 중 3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익숙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건 되려 저죠. 부족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주민 여러분들께도 같은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길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함성언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드릴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이번엔 2월부터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김다인 코디네이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디님! 코디님께도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김다인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약사명동 센터의 멤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무·회계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홍보와 기록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디님께도 직원 인터뷰 공통 질문드릴게요. 도시재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같이의 가치

오~ 신기합니다. 예전에 약사명동센터에 근무하셨던 이철효 코디네이터님도 같은 답변을 해주셨었어요. 같이의 가치. 도시재생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코디님, 2월부터 근무하셨으니 약사명동 현장은 이미 많이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장소가 있겠지만 약사명동 현장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약사명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마을 공유 공간입니다. 저희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업무협의, 설명회, 간담회, 주민공모사업, 주민협의체 회의 등 센터 대부분의 일을 이곳에서 진행했는데요. 이처럼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저희 센터 코디님들의 추억이 깃들어있고, 이제는 제 실무 경험도 함께 축적될 장소라는 점에서 마을 공유 공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약사명동 센터는 방문할 때마다 특유의 밝은 분위기가 있어요. 센터 벽에 붙은 사진들도 너무 보기 좋고요. 다인 코디님도 벌써 센터에 잘 녹아든 것 같아요.
네, 약사명동 센터 직원분들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함성언 센터장님, 신동천 사무장님, 서진렬, 이지나, 김재영 코디네이터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일도 꼼꼼히 알려주신 덕분에 제가 센터에 잘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명동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센터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석 달 동안 그래왔듯 약사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도시재생 파이팅!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다인 코디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 "도시재생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코디님 말씀대로 남은 사업 기간에도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마주보며 웃게 되는 마법, 다같이 스마~일 찰칵!

요선 스마일 '함께 웃는 가게'

글/사진 지아람 코디네이터



요선동을 거닐다 보면, 초록색 큰 현수막으로 스마일 캠페인 - 요선동 상가연합회라 적혀져 있습니다. 요선동에 오면, 웃을 수 있다는 걸까? 무얼까? 궁금증이 듭니다. 가게들 사이사이 기둥에 보면 금색 테두리에 아기자기한 일러가 그려져 있는 명판이 보입니다.

명판 안에는 '함께 웃는 가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요선동에 같이 있는 주민들과 요선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었습니다.

눈 맞으면 인사하기
하루 한 번은 상가 주변 청소하기
방문 손님들께는 항상 친절과 배려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지역사회 봉사하기

이 내용을 읽고선, 훈훈한 웃음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굳이 명판에 적어놓는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밖에 걸어놓은 명판을 상기하며, 고객들에게 웃음을, 요선동 주민과 웃으며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선 스마일 '함께 웃는 가게'는 2021년 상반기 춘천시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민이 제안해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요선 스마일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방문율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 낙후된 요선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주민 간 공동체 의식 강화를 기대하며 요선동 상가연합회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작으로 스마일 인증 업소 홍보물 제작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나눔 등을 진행하며 어느새 사업 기간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주요 기획한 조운동 도시재생 주민(상인)협의체 부대표님이자 요선동 권역에서 40여 년간 맛있는 불고기 음식을 선사하고 계시는 선은성 일흥불고기 사장님께서는, "요선 스마일 캠페인을 통하여 상인분들의 50%가 더 좋아졌다며 요선동 상가 연합회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쯤에서, '함께 웃는 가게'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게에 들어서기 전 쾌적한 환경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들어가면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시는 사장님, 맛있는 음식, 커피, 예쁜 옷 등 즐거움을 느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요선동이 고객과 시민이 함께 웃는 동네가 되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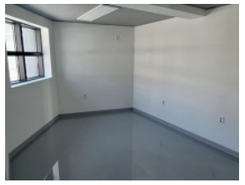
교동소양동의
첫 번째 마을 공유공간

봉의산 마을 창작소

건물명 봉의산 마을 창작소
주소 강원도 춘천시 교동 93-94번지
규모 토지 면적 28평, 건축물 면적 15평
구조도 벽돌조 2층 리모델링

글/사진 이채은 코디네이터









교동 지역의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진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은 듯한 슈퍼 건물이 있었습니다. 과거 동네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해주고 많은 주민의 발걸음이 닿은 곳이었을 테지만, 슈퍼가 있던 자리였음을 알 수 있는 간판의 흔적만 남긴 채 공폐가가 되어 남아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폐가로 방치되다 보니,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교동 · 소양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폐가 매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말 교동 · 소양동 사업지역 내 첫 번째 마을 공유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봉의산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 '봉의산 마을 창작소'라는 공간 명칭이 생기게 되었고, 주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도 간판이 달렸습니다. 앞으로 봉의산 마을창작소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앞으로 교동 · 소양동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유공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 건물이 리모델링 된 것뿐이지만 그동안 교동 · 소양동 지역에 없던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됨으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간 관리와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주민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첫 마을 공유공간에서 전해질 따뜻한 소통의 온기와 함께 나눌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다려집니다.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 4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우리 매거진은 PC 또는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 웹진
› 웹진〈치읓치읓〉 4호
https://uris.chuncheon.go.kr/webzine/4/index.html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 카페 〈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 인스타그램 〈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 페이스북 〈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 페이스북〈교동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 인스타그램 〈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 페이스북〈조운동네〉
https://www.facebook.com/joundongn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